

# 북녘에 부처님 말씀 띄운다

## 국방부, 대북방송 '자유의 소리'에 종교프로 검토

8월초부터 북녘 동포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군순단(단장 강남석법사)은 국방부 민사심리전 참모부와 '자유의 소리' 방송에 종교 프로그램을 삽입시키는 문제를 매우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자유의 소리' 시간에 각 종교의 진리를 담은 프로그램을 삽입시키는데 동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

대북방송에 종교 프로그램을 삽입시키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것은 일반 뉴스시간에 각 종교계의 소식을 전하거나 초파일, 크리스마스 등에 관련 특집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경에서 열린 한·중·일 불교대표자 회의가 방송됐으며 지난 4월 28일 중부

전선 모사단에서 발행된 부처님 오신날 정음식 소식도 북녘에 전해졌다.

국방부가 본격적인 종교내용을 담기로 한 것은 종교적 교감을 통해 민족동일성을 확고하고 인성의 순화를 위한 것이란 군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종교방송은 주제가 프로그램을 하루에 4번 반복해서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방송시간은 20분 미만인 될 것이란 관계자의 귀띔이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종교대북방송을 검토해 왔으며 불교와 천주교가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종교는 대북방송에 프로그램이 삽입될 경우 프로그램과 인력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순단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북 불교방송과 관련 총무원으로부터 제반 업무를 일임 받았

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북녘동포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연대 기자>

### 청소년포교 활성화 논의 포교토론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

님)은 지난달 30일 제5차 월례 포교토론회를 개최, 청소년 포교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조달현국장(청소년교화연합회)은 청소년 포교에 전문성 있는 청소년 지도자 배치, 청소년 지도교안 개발, 수련시설 확충 등을 주장했다. 이어 현과거사

와 박영동 교법사(동대부교)는 불교와 기독교 학원의 포교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재법스님(동쪽나라 주교), 원명스님(금강정사), 황학현원장(불교교육원)등 10여명이 토론에 나서 청소년 포교대책을 제안했다.

### 문체부 장관상 수상 동대부중, 청소년 등반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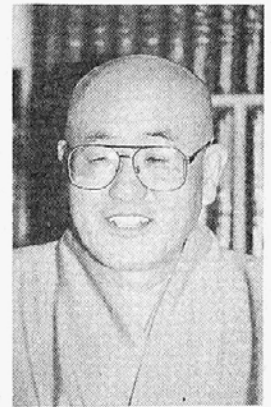
(사)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소속 동대부중팀이 지난 5월28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청소년 등반대회'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교원 소속 동대부중은 불암산(서울 노원구 소재)을 5개의 포스트로 나누고, 10명이 1개조가 되어 각 포스트 간에 주어진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면서 진행된 이번 등반대회에서 문체부 장관상인 국토사랑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게됐다.

구독신청: 737-8881

"미국 전역과 캐나다 지역까지 미주불교방송이 전파를 탄다. 교포들의 호응 또한 좋고요."

지난달 1일까지 8박9일간 북한을 방문하고 25일 귀국한 정산스님(LA 수도사 주지)은 올해 1월에 2대 미주불교방송이사장에 취임하여 부처님의 불음전파에 여념이 없다.



### 인·터·뷰

#### LA 불교방송 이사장 정산스님

#### 미국 전역과 캐나다까지 방송

미주불교방송은 94년 2월 부터 라디오코리아와 FM서울방송을 임대하여 매주 토요일 아침 7시~8시까지 1시간 동안 불교계 소식과 자비의 소리(스님설법, 권기종 교수 교리강좌)를 방송한다.

1백만 교포들이 거주하는 LA지역은 라디오 청취율이 유난히 높아 시간을 늘려달

라는 주님이 체대하고 있다. 정산스님은 오는 7월말경 동대부중 교장직을 사임하고 초창기 강연과 기쁨에는 불자연애인을 초청하여 공연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미주 불교방송은 각 사찰의 주지스님 및 포교사회법사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을 맡고있다. <김원우 기자>

# 북경 한국홍법원 개설한다

## 교민들 모여 신도회 결성...조계종 중국불교협 협조 얻어

북경에 한국홍법원이 개설된다.

북경 거주 상사주재원, 국영기업체 및 대사관 직원, 교민 등 80여명의 한국불자들은 지난달 25일 오우호텔 오우정에서 '재 북경한국홍법원불교신

도회'를 결성하고 조계종의 행정적 지원하에 향후 홍법원을 개설하기로 했으며 이날 모임의 증명장주인 원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종단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삼자정책에 의해 외국인에 의한 포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조계종은 중국불교협회(회장 조박초)의 협조를 얻어 적당한 장소를 물색 신도들의 법회봉행 및 각종 교민행사장소 사용에 할 예정이다. 홍

법원 불교신도회 지도법사에는 호육스님(북경대 사회과학원 연구원) 초대회장에 김춘성씨(한국통신공사 북경사무소장), 부회장에 김강환씨(주중 한국대사관 임명서기관) 민경희씨(선경 북경지사 김영춘 부장부인) 등이 선출됐다.

김춘성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불자들의 불심을 심화시키고 불교교인을 보다 정례화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재 북경 한국홍법원 불교신

도회는 지난해 3월부터 관제사에서 매월 1회 법회를 봉행해 오다 이번에 정식으로 신도회를 결성케 됐으며 북경에는 이외에도 유학생들이 주축이 된 '북경한국인불자회'가 있어 정암스님을 지도법사로 격주로 법회를 열고 있다. <이경숙 기자>

### 용인 세계불교대전 3만8천여명 관람

지난달 3일 용인자연농원에서 개막한 세계불교문화대전이 불자 및 일반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자연농원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관람객은 총 3만8천1백83명이 입장했으며 불교신자는 주로 50대 여성불자와 단체관람객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전시중인 문화유물은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성철스님관, 중

### 국유물관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다는 것이 관계자의 귀띔이다.

### 창종 50년 기념법회 법화중, 총무원장 취임식도

대한불교법화중(총무원장 김대호스님)은 7일 오전 12시 태워호텔 레스토랑에서 제 50주년 창종기념법회를 거행한다.

또한 4월3일 제54회 중앙종회에서 제15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김대호스님의 취임식도 함께 봉행할 예정이다.

### 불교와 교육개혁

수 있으며 불교를 바탕으로 한 특별활동으로 개인 인격형성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다. 각 대학이 '성적순'이 아닌 '인간됨됨이 순'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했을 때 교육현장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각 종립학교와 종단이 앞장서서 새 교육 풍토에 알맞은 신선한 교회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개혁방안'을 앞서가는 '교화개혁방안'이 불교계에서 속히 제시될 기 대한다.

### 대구가스사고 희생자 49세

#### 태고종 경북총무원 오는 14일

태고종 경북총무원(원장 박관희 스님)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대구 두루공원내 시민광장에서 '국가재난 소멸 기원 및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희

생자 위령 49제'를 봉행한다. 박서봉 총무원장을 비롯 희생자 유족이 참석할 이번 위령제는 영산재보존회원들의 불교전통의식으로 봉행할 예정이다.



◇군자봉 영각사 지장성지 조립도.

# 영각사 납골당 건립

## 11일 극락영묘전 기공...5백평 규모 97년 준공

매장위주의 장묘제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납골사찰이 건립된다. 경기 시흥 영각사(주지 현법)는 지난달 27일 납골당 시공설계 소개 및 사업계획 설명회를 갖고 오는 11일 극락영묘전 건립 기공식을 봉행한다고 밝혔다.

영각사가 건립하는 영묘전은 교계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납골당으로 4백68평 규모에 1만1백8기의 납골을 안치할 수 있다. 특히 영묘전에는 향은 함승 탈취등 초현대식 첨단시설을 갖추게 되며 49재를 비롯 영가들을 위한 기도공간으로 지정전도 함께 마련된다. 영각사 주지 현법스님은 "묘지로 인한 자연훼손을 막고 불

교장례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영묘전을 건립하게 됐다"며 "수도권 내의 무연고 묘지를 수용하는 등 사회복지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각사는 영묘전을 비롯 무량수전 등 전각불사를 진행, 오는 97년 6월경 준공할 예정이다.

'신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되자 많은 국민들이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매년 입시 때마다 '이대로 좋은가'라는 의구심이 대두됐던 우리의 교육제도가 이로써 해방후 열두번째의 새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환영' '만시지탄'이라는 용어들이 동원되고 있는 이번 개혁방안은 과거 열한번의 탈바꿈에 비해 매우 획기적인 계 사실이다. 그것은 방법의 수정이 아니라 기틀을 바꿔 놓았다는 원칙이 강하게 포함됐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나 대학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와 교육의 참의미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남았다는 '교육개혁방안'. 새

목탁 소리  
임연대  
(취재2부 차장대우)

롭게 제시된 이 방안을 놓고 불교계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불교 각 종단 산하에 적지

않은 종립 학교가 있고 청소년 단체 또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종교와 교육의 유기적인 관계를 두고 그간 불교계가 고민해 왔던 점은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실제로 학교 교육에 끼

어 많은 종립 학교가 있고 청소년 단체 또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종교와 교육의 유기적인 관계를 두고 그간 불교계가 고민해 왔던 점은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실제로 학교 교육에 끼

## 불기 2539년 부처님오신날 특별기획 불자보시품 대할인보급

**선착순 20점**

• 석가세존부처님대기명품 장엄하신 세존부처님의 일대기를 금화로 조성한 살아있는 명품입니다.

■ 8폭  
높이 : 5자5치(167cm)  
폭 : 12자(364cm)

• 종전가 298,000  
행사특가 : 298,000

**선착순 38점**

• 16나한 수행상 탱화명품 중국최고의 화사 계문대사의 원작을 공단에 금화로 조성한 영험높은 명품

■ 10폭  
높이 : 5자6A(169.7cm)  
폭 : 15자(약 454.500cm)

• 종전가 300,000  
행사특가 : 300,000

**선착순 48점**

• 비경 천불금강경 경관 부처님 천분을 양각하여 모시고 가운데 금강경을 입세사경한 비경

■ 재질 규격  
주식 99%(순금계급) 505 x 255 x 8(%)

• 종전가 340,000  
행사특가 : 340,000

**선착순 108점**

• 국보제32호(고려말대정경 정일축소) 금동만야심경

■ 재질 : 순동 24K계급  
재질 : 가로260 x 세로99(%)

• 종전가 68,000  
행사특가 : 68,000

---

**선착순 7점**

■ 만다라로신 벽시계 불법의 원력을 바로 느끼게 하는 신비의 영성세계-만다라

• 종전가 90,000  
행사특가 : 90,000

**선착순 7점**

■ 염주메달 영동한전주교 빛어진 부처님상 18K(9.375g 원연루비 22개)

• 종전가 288,000  
행사특가 : 288,000

**선착순 108점**

■ 팔정도 (일)관세음보살상(뒤)만야심경 순은 99.9% 18.75g(세인포함)

• 종전가 32,000  
행사특가 : 32,000

**선착순 108점**

■ 24K 순금 황금만야심경백자

• 경동대선사 원필  
• 크기 : 30 x 104cm

• 종전가 98,000  
행사특가 : 98,000

---

**선착순 7점**

■ 만다라로신 벽시계 불법의 원력을 바로 느끼게 하는 신비의 영성세계-만다라

• 종전가 90,000  
행사특가 : 90,000

**선착순 118점**

■ 국보 제29호 황금에밀레종(성덕대왕신종)

• 재질 : 순청동·순금계급  
• 크기 : 235 x 185 x 270(%)

• 종전가 85,000  
행사특가 : 85,000

구입 문의 **三田佛事** (02)732-6095 / 732-6096  
\*클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수신자부담))